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카자흐스탄

Republic of Kazakhstan

2020년 7월 28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일반개황

면적 2,725천 km ² 	인구 18.8백 만명 (2020 ^e)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 러시아, 대 중국 협력 확대, 대 서방 우호관계 유지 
GDP 1,602억 달러 (2020 ^f) 	1인당GDP 8,532달러 (2020 ^f) 	통화단위 Tenge 	환율(U\$기준) 415.7 (2020 ^f)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 이후 실시된 2019년 6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토카예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국가안보위 의장, 여당인 '누르오탄'당 대표 등으로 정치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기존에 추진해 온 '누를리 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디지털 카자흐스탄', '100개의 구체적 방안' 등의 정책과 함께 최근에는 '2025 전략발전계획'과 '고용 로드맵'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일대일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8 수교 (북한과는 1992. 1. 28)

주요협정 무역협정('92), 문화협정('95), 투자보장협정('96), 과학기술협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4),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정('06), 원자력협정('10) 등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532,726	797,818	2,657,131	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수입	998,342	1,362,109	1,561,644	원유, 우라늄, 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0.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322건, 2,665,89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0.9	3.9	4.1	4.5	-3.2
소비자물가상승률	14.6	7.4	6.0	5.3	7.1
재정수지/GDP	-0.3	-1.7	-0.9	-1.2	-4.4

자료: IMF, EIU

2019년 투자 및 소비 증대로 플러스 경제성장,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2019년에는 원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증가, 사회복지 부문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임금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9년에는 남부의 크즐오르다에서 수도인 누르술탄까지 연결되는 1,061km에 이르는 Saryarka 가스관 공사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증가하고, 최대 30%에 이르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소비가 6% 증가하였음.
- 또한, 2017년부터 유가가 다소 안정되며 원유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출 규모가 증가하여 2018년 4.1%에 이어 2019년에도 4.5%의 경제성장을 기록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가스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3.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IMF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2021년에는 에너지 수출 증가에 따라 4.1%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8년(-0.9%)에 이어 2019년에도 -1.2%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정부의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2018년의 GDP 대비 4.4%에서 2019년에는 5%로 증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탕감 등에 따른 것임.
- 2020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GDP의 12%에 이르는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약 88억 달러는 정부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국부펀드(NFRK)에서 지출할 계획임.

국내경제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과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 2016년 텡게화 환율 상승으로 상품 수입가격이 상승하며 14.6%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17년부터는 유가 안정에 따른 환율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 추세임.
 -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의 7.4%에서 2018년에는 6.0%로 둔화했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어 5.5%로 둔화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 2020년 3월 중앙은행은 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유가가 급락하고 텡게화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음에 따라 기준금리를 9.25%에서 12%로 인상하였으나, 4월 초에는 OPEC+의 합의에 따른 유가 안정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금리를 9.5%로 인하하였으며, 7월 9%로 다시 인하하였음.
- * 중앙은행 기준금리 주요 추이: 9.25%(2019.09) → 12%(2020.02) → 9.5%(2020.04) → 9%(2020.07)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8,132	-5,102	-223	-6,498	-10,135
경상수지/GDP	-6.1	-3.1	-0.1	-3.7	-6.3
상 품 수 지	9,253	16,728	25,579	19,118	9,941
상 품 수 출	35,486	47,301	59,826	57,822	38,245
상 품 수 입	26,232	30,573	34,247	38,704	28,304
외 환 보 유 액	19,361	17,469	15,772	9,320	6,840
총 외 채	163,632	167,134	158,681	161,059	163,821
총외채잔액/GDP	122.4	102.8	90.9	91.9	102.3
D.S.R.	38.9	22.2	19.3	19.2	27.9

자료: IMF, EIU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악화

-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원유의 비중이 높은 카자흐스탄의 상품 수출액이 3.3% 감소한 반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기 및 설비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상품 수입액이 13%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함.
- 2019년의 브렌트유 배럴당 평균 가격은 64.12달러로 2018년의 71.69달러에 비해 10.6% 하락하여, 카자흐스탄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수출규모가 11.2% 가량 감소하였음.
- 반면 수입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수요 증가로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였고, 광물 및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설 장비, 파이프라인, 기기 및 설비 등의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국제유가가 더욱 하락하여 경상수지 적자 비중 확대가 전망됨. 총수출증가율은 -33.8%로 하락하고,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1.5개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 2019년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 11%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에 크게 상승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텡게화의 미 달러당 평균 환율은 382.75텡게로 2018년의 1달러당 344.71텡게에서 약 11% 상승하였음.
- 2020년 3월 말~4월 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으로 달러당 448텡게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유가가 다소 안정되며 7월 중순에는 달러당 410텡게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환율 변동(2020.3~6월)

단위: 1달러당 텡게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지표는 2016년 이후 GDP 규모 및 수출 증가로 개선 추세이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다소 악화

- 2016년 이후 GDP 규모와 총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122.4%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91.9%를 기록하였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2016년의 373.5%에서 2019년에는 236.5%로 하락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수출액의 증가에 따라 2016년 38.9%에서 2019년에는 19.2%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GDP 규모와 수출액이 동반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02.3%,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63%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D.S.R.도 27.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12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대규모 국부펀드 운영으로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보유

- 2020년 5월 기준 GDP의 약 33%에 달하는 584억 달러의 대규모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음.
- 국부펀드 자금은 예산지원 및 환율안정 대응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자금 지출이 증가하여 국부펀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
- * 국부펀드 규모(억 달러): 732(2014년) → 612(2016년) → 584(2020년).

구조적취약성

에너지 및 광물 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

-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광물 부문이 거시경제 및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대외경제환경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석유 부문이 GDP의 15%, 수출의 50%, 정부 재정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 부문이 GDP의 20%,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
- 전체 수출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석유 등 연료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67.1%로 가장 많으며, 철강 6%, 광석 4.7%, 구리 2.6%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에도 전체 광공업 생산에서 광물·에너지 부문이 55.4%, 제조업 생산이 38.5%를 기록하여 여전히 원자재 생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조업 내에서도 원자재와 연관된 광물가공업의 비중이 43.7%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산업 14.6%, 기계제작 12.3%, 식음료 3.6%, 경공업 1%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금융 부문의 취약성은 다소 개선

- 2016년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 왔던 금융권의 취약성이 다소 개선됨.
- 2016년 12월에는 중앙은행이 카즈코메르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로 약 12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정부에서 약 65억 달러의 자금을 부실채권 기금에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7년 9.3%에 달하던 부실여신의 비중은 2019년 8.6%, 2020년 1월 8.1%로 하락하였음.
- 또한 2018년 7월에는 자산규모 1위 은행인 할릭은행(Halyk Bank)이 2위 은행인 카즈코메르츠은행(Kazkommertsbank) 지분 96.8%를 인수하여 합병하였음.
- 2019년 11월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금융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 불법 행위 감독 및 금융시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시장 조정 및 발전청'(the Agency for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을 설립하였음.

성장잠재력

카스피해를 통한 국제 운송물류 증대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항만 인프라 개선 및 러시아, 이란 항만들과의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카스피해 해상물동량을 크게 증대시킬 계획임.
- 2019년 4월에 카자흐스탄 악타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 간의 해운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여 2019년의 해상물동량은 석유 220만 톤, 건화물 250만 톤, 여객 화물 140만 톤 등 600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5.7%가 증가하였음.
- 정부는 카스피해 물류 활성화를 위해 악타우항 현대화 및 복합산업단지 설립과 쿠릭항 화물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항만 인프라 개선과 악타우항에서 러시아, 이란 항만을 연결하는 신규 해상로 개설을 통해 정부는 카스피해 물동량을 2030년에는 1,800만 톤으로 현재의 3배로 증대시킬 계획임.

풍부한 매장량 및 안정적 수출망 구축으로 에너지 부문의 발전 잠재력 보유

- 2019년 말 기준 카자흐스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7%(세계 12위)에 해당되는 약 300억 배럴을 기록함.
- 중앙아시아 최대의 카샤간 유전을 비롯하여 탱기즈, 카라차가낙 등 3대 유전에서 대부분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음. 카샤간 유전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체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 2009년 7,650만 톤(일평균 160.9만 배럴) → 2014년 8,110만 톤(일평균 171.0만 배럴) → 2018년 9,140만 톤(일평균 192.7만 배럴) → 2019년 9,140만(일평균 193.1만 배럴)
- 기존에 러시아로 연결된 송유관과 2006년에 중국으로 연결된 송유관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향후 대중국 원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카즈아톰프롬(Kazatomprom)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24%를 점유하고 있음.

기업경영 환경 개선

- 2019년 10월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전체 190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항목별로는 창업, 재산권 등록, 법적분쟁 해결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통관행정은 매우 취약하며 전기공급이나 퇴출 등의 항목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소득세 면세, 행정감사 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짐.

성장잠재력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발전 정책 추진

- 2020~22년에 네덜란드, UAE, 러시아 등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가스, 화학, 농업, 광물, 재생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70여 개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발전계획(the Strategic Development Plan For 2025)'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금융 및 농기계 리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GDP에서 중소기업 생산이 점유하는 비중을 2019년의 30.8%에서 2025년에는 35%, 2050년에는 50%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조달 절차를 단순화하고 카자흐스탄 국내 기업의 생산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정책성과

'2016~20 민영화 계획'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20 민영화 계획'을 통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기업인 카즈아톰프롬(Kazatomprom)의 지분 매각에 성공하였음.
- 2020년 6월 런던증권거래소(LSE)과 아스타나증권거래소에서 국영 삼룩카지나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카즈아톰프롬의 지분 6.27%가 2.06억 달러에 매각되었음. 기존의 카즈아톰프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삼룩카지나 펀드는 2018년 IPO를 통해 14.92%의 카즈아톰프롬 지분을 매각하였고, 2019년에도 3.8%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음. 2020년 6월의 지분 매각으로 삼룩카지나의 보유 지분은 75%로 줄어들게 됨.
- 2021년에도 정부는 에너지, 철도, 우편 등 부문에서 8개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

산업다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조업 투자 미흡

- 정부는 자원·에너지 주도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산업 및 혁신 활동 지원', '특별경제산업지역' 등의 법 제정과 함께 2010~19년 기간 동안 24개 제조업 분야에서 1,36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지원분야는 농가공업 30%, 건설업 25.4%의 비중으로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계 제작(10.4%), 화학공업(5.7%), 경공업(3.6%) 등의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대부분 광공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10~15%에 불과함.
- 현재 정부는 2021~25 축산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 부문의 발전과 4만 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은행이 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정부 행정 개선 등을 위한 '100 Concrete Steps'(100개의 구체적 방안) 추진

-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정부 기관들의 전문성 확보, 법치 보장, 산업화 및 경제성장, 민족 단결, 국가의 투명성 등 다섯 개 영역에서의 발전을 목표로 '100개의 구체적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9월 그동안 추진된 '100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법원 재판과정의 영상 기록 보관, 소련 시기에 제정된 건축 관련 규정 개정, 12년 학제로의 전환 등을 비롯한 58개 부문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음. 경제 부문에서는 2018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최대의 성과로 평가됨.

정책성과

‘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에 따른 5G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 각 부문의 디지털화, 국민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발전, 전자상거래 발전 등을 목표로 2018~22년 ‘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쉴켄트 등 주요 3개 도시에 5G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2019년 6월 국영 ‘카작텔레콤’은 스웨덴 에릭슨(Ericsson)사와 공동으로 알마티 일부 지역에 카자흐스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에는 수도인 누르술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과 엑스포 센터 등에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또한 쉴켄트에서도 카자흐스탄 Beeline사가 핀란드 노키아(Nokia)사와 공동으로 5G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2022년까지 공항, 기차역, 대형 쇼핑몰에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카자흐스탄 14개 전지역에 5G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누를리 졸(Nurly Zhol)’ 정책을 통한 물류인프라 개선

- 2015~2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1단계 누를리 졸 정책을 통해 교통인프라가 확충된 것으로 평가됨.
- 누를리 졸 사업을 통해 ‘서유럽-서중국’ 프로젝트에 포함된 527km에 이르는 도로 건설,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국경간의 도로 건설 등을 비롯하여 지난 5년 동안 약 3,000km의 도로가 개보수 되었음.
- 카스피해의 악타우 항만의 3개 터미널 신축으로 연 물동처리량이 2,000만 톤으로 증대되어 카스피해의 전체 물동처리량이 2,700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항만 인프라 개선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체 물동량에서 카스피해를 통한 물동량의 비중이 2015년의 21%에서 2020년에는 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2019년 12월에 2단계 ‘2020~25년 누를리 졸’ 인프라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음.
- 2단계 사업을 통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112개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으로 정부는 1만 km의 도로 개보수, 16개의 공항 건설, 600개의 철도객차 및 48척의 선박 구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치동향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치개혁 추진

- 토카예프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 정치에서의 여성 및 청년 쿼터제, 야당의 법적 지위 등 정치개혁 관련 법을 제정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5월 말에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평화로운 집회 조직 및 진행 절차'에 관한 법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음. 이 법은 각 도시나 지역에 집회 지역을 지정하며 과거에는 제한되었던 언론의 집회 현장사진 및 동영상 배포를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올해 5월 말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법', '카자흐스탄 선거법', '카자흐스탄 정당법의 개정 및 보완법' 등에 서명하였는데, 각 정당의 주요 직책 가운데 30% 인원을 여성과 29세 미만의 청년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2020년 6월 대통령은 야당에게 의회 내 의제 제안이나 발언 등 권한을 보장하는 '카자흐스탄 의회 위원회에 관한 법'에 서명하였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듣는 정부(hearing state)'라는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 발전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토론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회, 다당제 민주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초대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퇴임 이후에도 정치활동 지속

-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는 유라시아 지역의 정상회담에도 참석하는 등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엘바시(민족의 지도자)라는 칭호가 부여된 나자르바예프는 여당인 '누르오탄'당의 대표와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헌법위원회 위원 등과 카자흐스탄 거주 전체 민족대표들의 회의체인 '민족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019년 9월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등의 핵심 부서 장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장관들과 대통령 행정실 관료, 검찰총장, 중앙은행장 등의 국가 고위 관료 임명시에 나자르바예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한편 나자르바예프는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정상회담과 12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 비공식 정상회담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카자흐스탄 대표로 참석한 바 있음.

사회동향

높은 부패수준 지속에 따라 중장기 반부패 정책 추진

- 카자흐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하위순위권에 머물러 있음.
- 카자흐스탄은 2019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평가대상 198개국 가운데 113위에 머물러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2011년의 전체 부패인식지수 평가대상 183개국 가운데 120위를 기록한 것에서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2025 국가반부패 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을 추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법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법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 부문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 부패방지과 관련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경제 부문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의 경제 투명성을 높여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민족 간 대규모 충돌 발생

- 2020년 2월 카자흐스탄 남부 잠빌 주에서 카자흐족과 둔간족의 충돌로 11명의 사상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음.
- 이번 충돌은 카자흐족과 중국계 무슬림인 둔간족 간의 잠재된 갈등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어 카자흐족의 둔간족 거주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발생하였음. 이 사건으로 둔간족 약 2만 명이 국경을 넘어 키르기즈로 일시적으로 피신하였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며 민족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 로드맵'을 통한 고용 확대 추진

-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2017~21 '엔백'(카자흐스탄어로 고용을 의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약 120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18.4만 명이 고용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정부는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 등을 비롯한 교육활동 지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농촌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인프라 부문에 6,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24만 2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5월 11일의 코로나19 대응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고용 로드맵' 추진을 위해 약 2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고용 로드맵'을 통해 사회보장, 운송설비, 주택 등의 부문에 7천여 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제관계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 카자흐스탄은 2018년 3월에 아스타나(현재 누르술탄)에서 제1회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 회의를 개최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이후 2차 회의는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었으며, 3차 회의는 2020년 키르기즈에서 개최될 예정임.
-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이 지역의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 등 공통된 관심주제들이 논의되고 있음.
- 소련 해체 이후 지속되어 왔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선 획정 문제가 2020년 내에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초에는 양국 간에 수자원 부문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러시아와는 경제협력 등 긴밀한 관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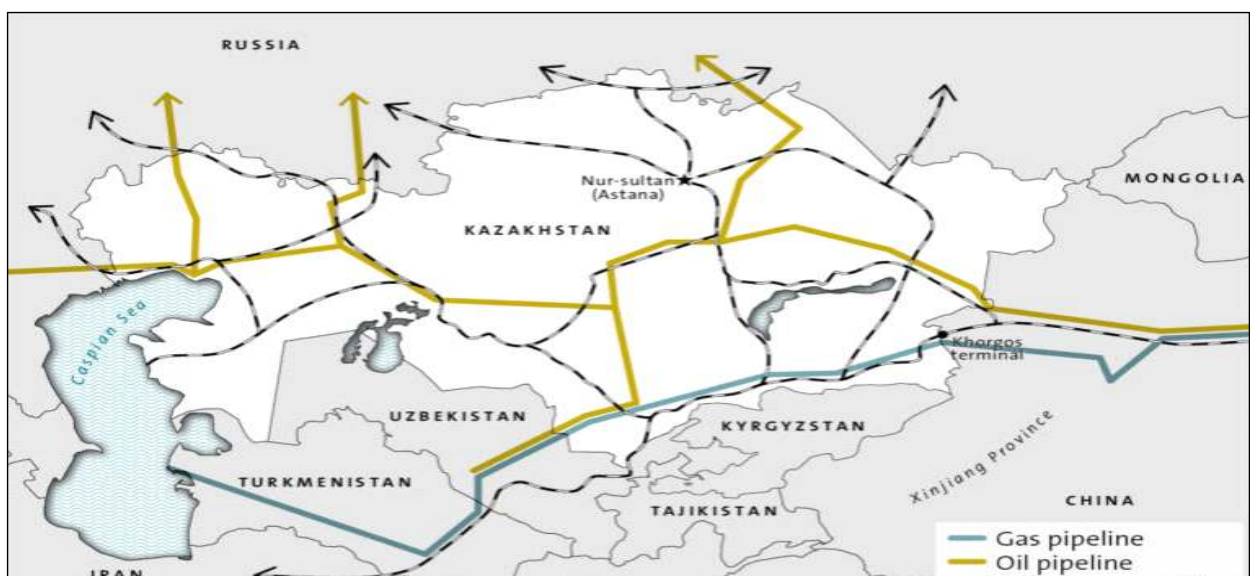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의 20.5%를 점유하고 있음. 특히 수입은 36.7%의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은 9.7%를 기록하고 있음.

국제관계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속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경계 여론 형성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건설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협력 국가로 서유럽-서중국 도로 건설, 호르고스 산업 및 물류 특구 건설 등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제2위 교역국으로 수출의 13.6%, 수입의 17.1%를 점유하여 전체 교역의 15%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2015년의 전체 교역 비중 13.8%(수출 11.9%, 수입 16.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2006년에 완공된 송유관을 통해 카스피해의 원유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산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한편으로 중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증대와 신장 거주 카자흐인에 대한 탄압 등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카자흐스탄 내에 형성되고 있음.
- 2019년 9월 서부 유전도시인 자나오젠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국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위가 알마티, 누르술탄, 쉴켄트 등에서도 발생한 바 있음.
- 약 100만 명 이상의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훈련소'에 다수의 카자흐인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곳에서 탈출하여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을 넘어온 카자흐인들에 의해 '재교육 훈련소'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폭로됨으로써 카자흐스탄 내에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카자흐스탄의 송유관 및 가스관



자료: CSS Analyses in Security Police. № 249. September 2019.

외채상환태도

외채는 대부분 중장기이며, 연체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

- 2019년 9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1억 3,630만 달러, 중장기 13억 8,260만 달러 등이며, 이 가운데 연체액은 중장기 650만 달러(약 0.5%) 수준임.
- 이는 2018년 9월의 수치(단기 1억 3,120만 달러, 중장기 16억 6,160만 달러, 이 가운데 중장기 연체액 1억 350만 달러(약 6.3%))에 비해 중장기 외채가 감소하고 연체율이 다소 하락한 것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0.01)	5등급(2019.02)
Moody's	Baa3(2019.08)	Baa3(2017.07)
Fitch	BBB(2020.2)	BBB(2017.04)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6년 초 이후 카자흐스탄에 대해 기존 등급 유지

- 2016년 이후 Moody's는 Baa3, Fitch는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Moody's, Fitch 모두 안정적 등급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경제는 2019년 정부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4.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3.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2019년의 -1.2%에서 2020년에는 -4.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토카예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자르 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여당인 '누르오타'당 대표,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헌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는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누를리 줄'과 IT 발전을 위한 '디지털 카자흐스탄' 등 경제인프라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반부패 및 고용확대 등의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GDP 및 수출액 하락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외채 관련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